



멕시코 경제의 회고와 전망

1. 개 관

2009년에 멕시코는 1995년 발생한 떼킬라 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경험하였다. 2008년 9월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여타 신흥개도국에 비해 비교적 강한 내성¹⁰⁾을 보여주었던 멕시코 경제는 총수출의 80%와 외국인투자의 50%를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상 1년 넘게 지속된 미국 경기침체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였다.

2009년 1분기에는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하고 외국인투자가 50% 이상 축소되는 등 외부 충격이 실물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건설업 침체에 따른 미국 거주 멕시코 근로자의 본국송금액 감소로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 2분기 들어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등에 힘입어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과는 달리, 멕시코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라는 대형 악재가 발생하여 경제활동일수가 급감하고 관광업마저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 시장이 거의 마비되었다.

3분기에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유와 광물 수출이 증가하고 유통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조금씩 회복되어 2008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2009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낮은 마이너스 7%대 수준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멕시코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경기부양책 추진과 세원 축소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멕시코의 경제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OECD는 2009년 7월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렸으며 Fitch와 S&P도 11월과 12월에 연이어 기존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조정하였다.

2010년 멕시코 경제는 8년 만에 최초로 중남미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지난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10) 2008년 멕시코 주가하락률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하락폭인 40%에 비해 양호한 24%를 기록하였음.



기저효과(base effect)로 분석된다. 멕시코 정부는 공공지출과 국민연금 확대에 따른 투자 증가, FTA 체결 확대, 수출 회복 등을 근거로 경제 회복을 낙관하고 있지만, 대부분 경제전문기관들은 미국 경제의 회복 지연,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경기부양 노력 부족, 해외근로자 송금 및 산유량 감소 등을 이유로 본격적으로 멕시코 경제가 회복하기에는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IV-1〉 멕시코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억 달러

		2006	2007	2008	2009 ^e
국내 경제	경제성장률	5.1	3.3	1.4	-7.1
	물가상승률	3.6	4.0	5.1	5.3
	재정수지/GDP	0.1	0.0	-0.1	-2.9
대외 경제	경상수지/GDP	-0.4	-0.8	-1.5	-1.2
	상품수지	-62	-100	-168	-116
	수출	2,499	2,719	2,913	2,368
	수입	2,561	2,819	3,086	2,484
	외환보유액	762	871	951	875
외채 지표	총외채잔액	1,607	1,794	1,836	1,763
	총외채/GDP	16.9	17.5	16.9	20.5
	D . S . R	18.8	12.5	14.3	16.8

자료: EIU.

2. 2009년 경제 회고

가.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대외경제에 심각한 타격

멕시코는 1980년대 3차례의 외채위기, 1995년 테킬라(tequila) 위기, 2001년 9. 11 테러에 따른 경기 침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총 6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들 경제위기 중 2008년 리먼 사태에 따른 미국발 금융 위기가 멕시코 경제에 단기간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고, 기간면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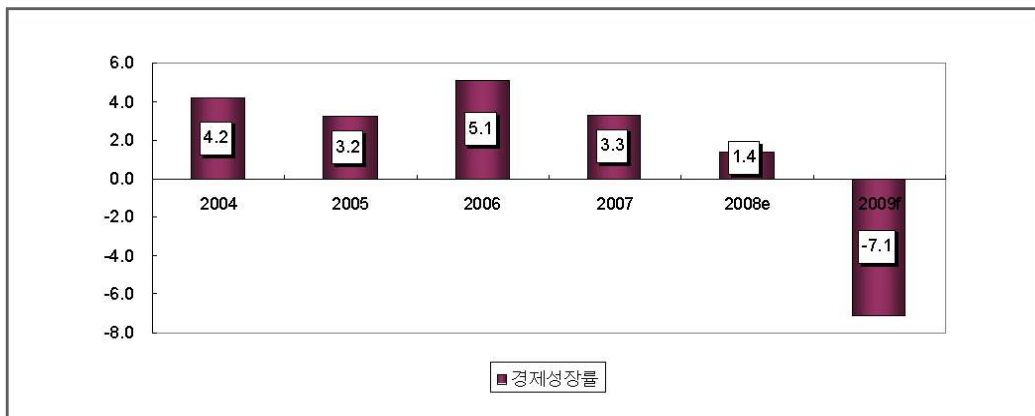


과거 경제위기 당시에는 미국이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주요 수출 및 투자처 역할을 하였으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는 미국의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데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제고도 멕시코 경제 회복의 돌파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통신, 유통업 등 멕시코 주력 산업에 대해 미국 기업들의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건설경기 위축으로 해외근로자 송금마저 감소하여 내수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미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2009년 멕시코 경제는 1994년 이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이자 그리고 1980년 외채 이후 가장 낮은 -7.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V-1〉 멕시코의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멕시코 재무부.

지난해 멕시코의 경기 침체는 수출과 외국인투자 급감, 즉 대외 부문에서 시작되었다. 2008년 멕시코의 총 수출액은 국제가격 상승으로 원유와 광물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2,91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들어 미국, EU, 중남미 등 주요 수출 대상지역의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했고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과 원유 생산량 감소로 자원관련 수출도 줄어들어 2분기까지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5%까지 감소하였다. 3분기부터 미국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국가에 대한 수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9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26% 감소한 2,360억 달러에 그쳐 2005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2009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자금유입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멕시코 경제에서 FDI는 원유 수출수입(약 500억 달러), 해외근로자송금(약 250억 달러)에 이은 제 3위의 외화수입원으로서 경제성장과 외환보유액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2009년 9월말 현재 대 멕시코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42% 이상 줄어든 97억 달러에 그쳤으며, 신규 투자는 75% 이상 감소하였다. 에너지 개혁을 통해 외국계 기업의 멕시코 자원개발 투자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구리, 주석 등 대규모 광업 프로젝트 추진이 중단되면서 자원개발 부문에 투자 유인이 감소하였고,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에 투자해 온 미국, EU, 아시아 기업의 영업 환경 악화 역시 FDI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IV-2〉 멕시코의 수출입 현황 (2008~2009)

		2008년		2009년 1~10월	
		금액(백만달러)	증가율(%)	금액(백만달러)	증가율(%)
수출	석유 부문	50,635	17.7	24,308	-47.8
	비석유부문	240,707	5.2	160,163	-22.2
	제조업	230,882	5.1	152,766	-22.8
	농수산업	7,895	6.4	6,252	-5.2
	기타	1,931	11.1	1,144	-31.2
총 수출액		291,343	7.2	184,471	-26.9
수입	소비재	47,941	11.3	26,066	-36.0
	중간재	221,565	7.9	137,862	-27.9
	자본재	39,097	16.3	24,779	-23.6
총 수입액		308,603	9.4	188,707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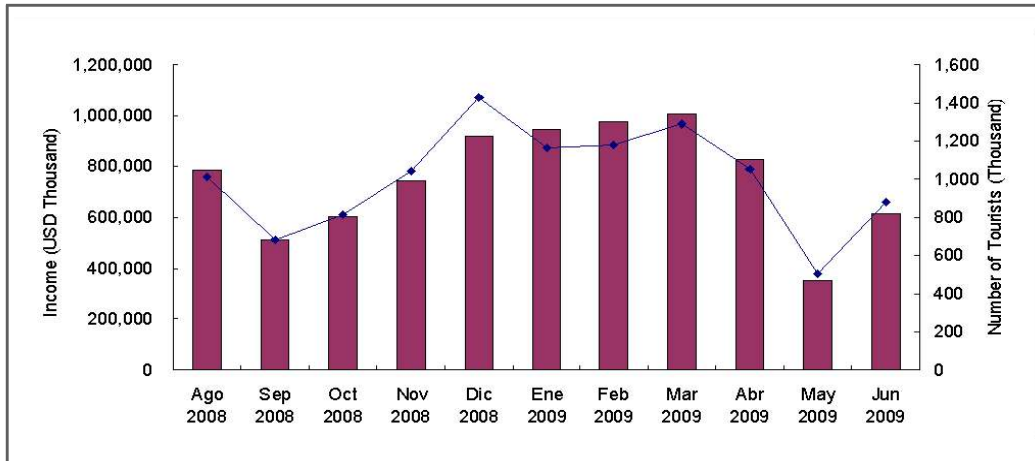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

나.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해외근로자 송금 축소 등으로 내수 침체 지속

브라질, 칠레 등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이 2009년 2분기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부양정책의 효과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과 달리, 멕시코는 4월 중반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대규모 악재로 인해 관광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림 IV-2〉 멕시코의 관광수입 및 관광객수 현황 (2008~2009)



자료: 멕시코 재무부.

멕시코 경제에서 관광업은 4대 외화수입원¹¹⁾으로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도 우수한 관광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자원을 배경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2009년 들어서도 크루즈와 남미 여행을 고려했던 미국 관광객이 대체지역으로 멕시코 관광을 선택하면서 3월까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관광수입과 관광객 수를 유지하였지만, 4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2009년 5월 멕시코에 입국한 관광객 수는 전년동월 대비 50% 이상 감소한 50만 명에 그쳤고 월평균 1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해 오던 관광수입도 3.5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7월 이후 관광업이 소폭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지만 2009년 멕시코의 관광수입은 전년 대비 16% 이상, 관광객은 8%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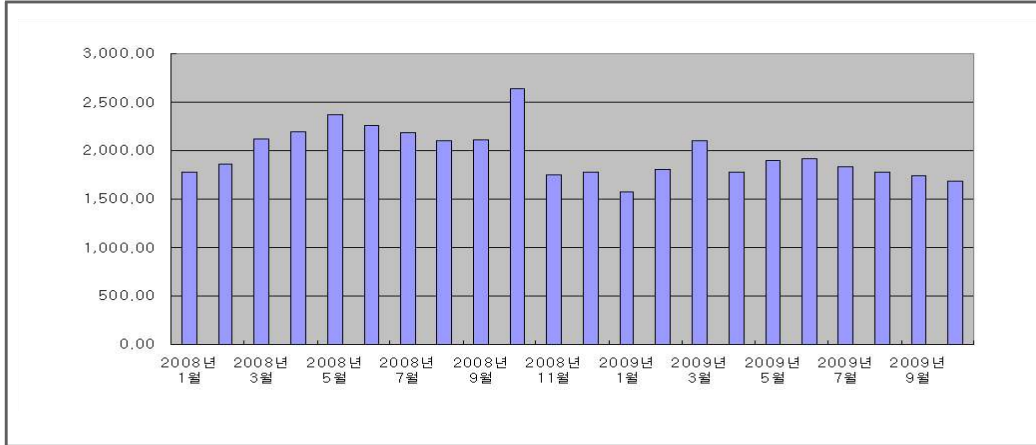
한편, 멕시코 내수 경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해외 거주 멕시코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은 2008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건설 경기가 냉각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그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근로자 송금은 2009년 들어 3월까지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6월 이후 재차 감소하여 10월에는 1996년 이후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큰 폭의 하락율(36%)을 기록하였다. 2009년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21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이다.

11) 2008년 기준 석유 수입은 500억 달러,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액과 FDI는 각각 251억 달러와 219억 달러였으며, 관광산업 수입은 13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그림 IV-3〉 해외 거주 멕시코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 유입 추이

단위 :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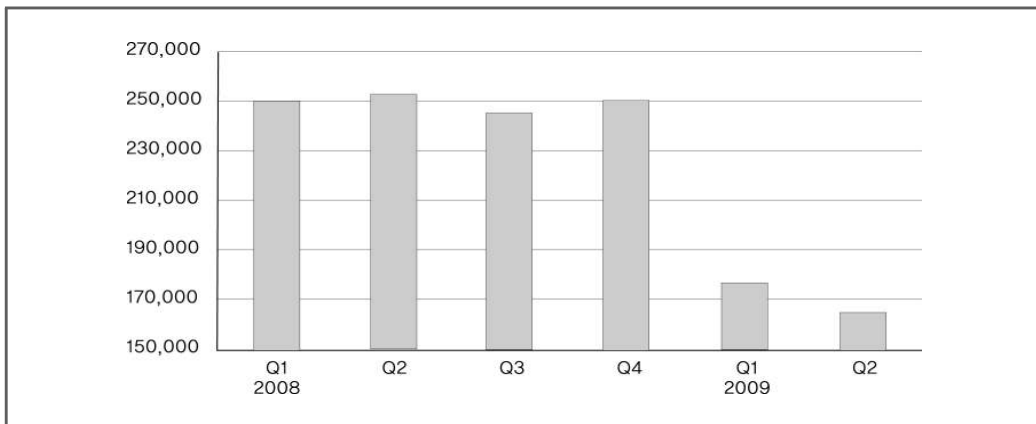


자료: 멕시코 재무부.

이처럼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관광업 타격, 건설업과 서비스업 위축에 따른 고용 불안¹²⁾, 해외근로자 송금 축소 등으로 인해 멕시코의 내수 경기는 심각할 정도로 위축되었다. 소매 판매는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었으며, 내수 경기의 척도로 작용하는 자동차 판매량 역시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하였다.

〈그림 IV-4〉 멕시코의 분기별 자동차 판매 현황

단위: 대



자료: 멕시코 자동차협회(AMIA).

12)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제조업 및 내수 침체로 인해 2009년 9월 멕시코의 공식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인 6%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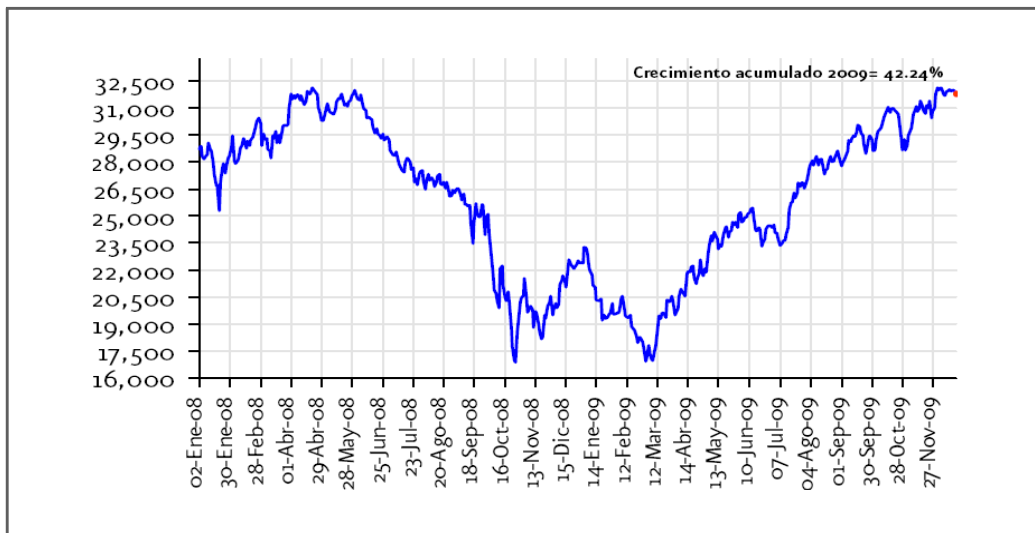


아울러 2009년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77 포인트(2003년 1월 = 100p 기준)를 기록할 정도로 멕시코 소비자들은 향후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조짐 포착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멕시코의 수출과 내수 관련 지표가 전년 보다 악화되었지만, 하반기 이후 금융 및 외환시장, 제조업 생산 등에서 완만한 회복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멕시코 주가지수(IPC)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전후로 17,500선이 연거푸 무너지며 급락세를 보였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반전,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 발표 등에 힘입어 4월부터 반등에 성공, 현재는 거의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또한 폐소화 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달러당 15페소까지 급등하기도 하였으나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FRB와 30억 달러의 통화스왑 체결, IMF의 신축성금융공여제도(FLC) 합의 등 멕시코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그림 IV-5〉 멕시코 주가지수 동향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



한편, 멕시코의 산업생산도 6월 이후 제조업(2.4%)과 전력(0.1%), 광업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기준¹³⁾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제조업경향지수는 11월 중 50.9p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8p, 전월 대비 2.7p 상승하였고, 제조업 주문지수와 생산자 신뢰지수도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는 추세여서 멕시코 경제가 하반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재정수입의 1/3을 차지하는 원유 부문과 관련, 12월 멕시코산 원유 수출 가격이 연초 28달러 대비 250% 이상 상승한 68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수출 회복은 물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멕시코의 재정악화 우려를 상당 수준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3. 2010년 경제전망

가. 미국 경제의 회복 여부가 최대 관건

2010년 멕시코 경제는 2009년 4분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수출과 투자에 힘입어 3%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증가하고 총 투자도 3.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멕시코 정부는 국민연금 확대에 따른 투자 증가, 수출 다변화 등을 근거로 회복을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경제전문기관들은 미국 경제의 회복 지연, 해외근로자 송금 및 원유 생산량 감소 등을 이유로 멕시코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OECD와 IMF는 2010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7%, 3.3%로 전망하는 등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성장률에 대한 주요 경제전문기관들의 예상도 2.7%~4.9%까지 다양하여 미국의 경기회복 전망, 멕시코 경제의 펀더멘탈 등에 대해 기관별로 입장이 상이함을 입증하고 있다.

13) 그러나 전년 기준으로는 여전히 5%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중임.



〈표 IV-3〉 주요 기관의 2010년 멕시코 경제전망

단위: %

	EIU		BMI		Latin Focus
	2010	2011	2010	2011	2010
경제성장률	3.0	2.7	3.2	3.3	3.2
물가상승률	4.9	3.7	3.2	4.1	4.4
실업률	5.9	5.9	5.5	4.5	5.6
재정수지(/GDP)	-2.0	-1.9	-3.1	-3.1	-2.6
경상수지(/GDP)	-2.3	-2.8	-0.3	-0.3	-1.6
외채잔액(/GDP)	19.5	19.1	17.1	14.6	20.8

자료: 필자정리.

나. 주요 신용평가기관, 멕시코의 재정상황에 촉각

대의 변수로서 미국의 경기회복이 중요하지만, 멕시코 경제 펀더멘탈과 관련해서 최근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멕시코의 재정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2009년 11월과 12월 Fitch와 S&P는 멕시코 재정상황 악화를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1단계 하향 조정하였고, Moody's 역시 세수 부족으로 재정 적자가 가시화될 경우 하향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최근 멕시코의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멕시코의 재정수지는 국제 원유가격 상승에 힘입어 2006~07년간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부터 적자로 반전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경제성장과 고용촉진 프로그램 등 각종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내수 부진과 고용 불안 등으로 세수가 급속히 줄어든 결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980년대 외채 위기 당시와 맞먹는 3%대에 달하였다.

경제전문기관들은 멕시코산 원유 가격 상승, 조세개혁 의회 통과¹⁴⁾ 등으로 정부 세입이 증가하고, 민간 투자가 재개되면 공공 지출이 감소하여 재정수지 적자 폭이 2010년부터는 GDP의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 랠리를 보이던 국제 원자재

14) 멕시코 정부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조세개혁을 단행하였음. 주요 내용은 부가가치세(IVA)율 인상(15%→16%), 법인소득세(ISR)율 한시적 인상(3년간 28%→30%) 및 결합법인세 소급부과(과거 5년), 현금예금세(IDE)율 인상(2%→3%) 및 과세 기준 강화(현 25,000페소→15,000페소), 전화요금 특별소비세(IEPS) 인상(3%) 등임.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고용과 소비가 불안한 상황에서 세금을 인상하는 재정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멕시코 정부는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회복, 원유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이 유리해지기를 기대하는 수동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2010년 멕시코의 경제 성장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ㄱ**